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度 넘었다'

여수시의원 75%·광양시의원 46% 올려
 공무원 2.5% 인상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

내년 전남도의회를 비롯해 일부 기초단체 의회의 의정비가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의정비 인상 방침은 지방의원들의 역할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내년 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올해 3천960만원에서 19.9% 인상된 4천748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심의위는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오는 31일 제4차 회의에서 내년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여수시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도 현재 2천741만원보다 무려 75%나 인상된 연간 4천8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시민여론조사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와 함께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위원 개인별로 적정 의정비 인상을 제출토록 한 결과 최고 5천만 원에서 최저 2천990만원선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위원들이 제시한 의정비의 평균값은 연간 4천200만원선으로, 기존 의정비에 비해 평균 인상은 46%에 이른다. 이 안이 확정되면 광양시의원 의정비는 현재 2천880만

원에서 1천300여만원이나 오르게 된다. 이와는 달리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내년 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총액 대비 1.4% 인상된 4천291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심의위는 시의회 의원 활동비 1천800만 원은 동결했으며 월정수당에만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적용, 올해 2천431만원에서 2천49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전남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일부 지방의회 의정비를 대폭 올리기로 한데 대해 지방의원들의 활동상에 비해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 지방의원 대부분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등 확실한 생계수단이 있고 일부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매달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고 있는 데다 주민들의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또한 그리 높은 편이 아니어서 의정비 대폭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불가인상률과 올 공무원 봉급 인상률(2.5%)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폭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섬이나 원거리 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안은 내년 의정비를 5천218만원(2007년 대비 6.3%인상), 울산 5천363만원(18.6%), 충북 4천601만원(15.1%), 경북 5천364만원(26.3%), 경남 4천920만원(15.9%), 제주 4천557만원(10.1%)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은 올해 책정된 의정비 6천804만원을 동결기로 확정했으며 대구도 5천4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감이 주렁주렁

꽃감 만들기에 가장 알맞은 상강(霜降·24일)이 지나면서 꽃감용 감을 깎아 말리는 농민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주렁주렁 매달린 셋노란 감줄기에서 가을이 더욱 짙어가는 듯하다. /장성근 북하면=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유가 100弗 눈앞...등유·경유 이어 도시가스료 내달 인상 연료비 급등...서민가계 주름

배럴당 90달러를 웃도는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등유·경유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데다 도시가스요금마저 전격 인상돼 난방수요가 많은 겨울 서민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한국가스공사는 28일 천연가스 수입원료비 가격상승을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현행 m³당 567.39원에서 585.55원으로 2.8%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시가스 도매가가 인상될 경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615.21원에서 631.37원으로 2.6%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이 예정대로 인상되면 도시가스 도·소매요금은 도시가스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따라 월평균 68㎡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한달에 1천2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등유와 경유의 급등세도 이어지고 있다. 2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월 넷째주(22~26일) 전국 주유소 1천 10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유가격은 l 당 4.51원 오른 1천339.68원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경

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가격은 지난 7월 둘째주 1천 247.48원으로 단기 저점을 형성한 후 오름세로 돌아서 9월 하순 l 당 1천 30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상승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10월 넷째주 1천 397.09원에서 1천555.09원으로 11.3% 올랐다. 실제등유도 판매가격이 28일 현재 지난주보다 7.55원이 오른 l 당 966.52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워 올겨울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대선주자 연속 인터뷰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 인터뷰 4·5면

“호남재 창조위 만들겠다”

“중소기업 활성화로 경제적 민주화 이룩”

가칭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 후보는 “호남재 창조위원회”를 만들어 (호남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 25일 광주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호남을) 사람, 교육, 연구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식으로는 안되며 완전한 재창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또 “광주정신은 민주화의 선봉이 됐지만 정치적 민주화만 됐다면 이제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민주화, 즉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

소,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이룩하는 경제적 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광주를 광산업과 첨단산업·소재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며 “전남은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동북아 물류·교역·관광의 중심지로 키워갈 것”이라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관에 대해 “이 후보가 추구하는 경제는 토목과 건설, 대기업중심의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80년대

형 가짜경제다”며 “나는 성장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사람중심의 ‘진짜경제’를 만들고자 한다.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다”라고 주장했다. 범여권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 문 후보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치나 비전에 대한 일치 없이 단순히 정치 공학적으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치경기자 jkpark@

러시아 국립 이르쿠츠크 교향악단 첫 내한 공연

2007.10.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07.10.31(월)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07.11.1(화) 광주시 공연나눔차이에술회관

티켓 문의처 062-606-7771

유망학원 장학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i.ac.kr

지방의 선택! 희망 2007

대선 50일 앞으로...전국 민심은 ▶3면

innisfree